

출국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Pre-departure Orientation

영국으로 입국 할 때

1. 입국허가사증(비자)

여행이나 학업을 위해 6개월 이내로 영국에 체류하려는 경우, 따로 입국허가사증(비자)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학업을 위해 6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이거나 여행이나 학업 이외의 방문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출국 전 입국허가사증(비자)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정보는 주한영국대사관 비자과 사이트나 www.u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기타 준비해 가면 유용한 서류들

- 운전 면허증 (Driving license):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가거나 우리나라 면허증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면 영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허증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영한국대사관 웹사이트 참고)
- 자동차 무사고 증명서 (No-claim Certificate, Certificate of Automobile Insurance)
- 아기 면역 접종 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sation)
- 영문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 : 질병이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

입국 후 해야 할 일

1. 병원 이용하기

영국은 국가 의료제도 (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실시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P(General Practitioner: 주치의)는 환자를 일차적으로 치료하고 책임지는 담당의사로, 자신의 관할 지역 Surgery, Medical Centre에 소속되어 있으며, 다른 의료 기관 및 의료인과 협력 관계에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준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영국에 체류할 경우, NHS (National Health Service)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단한 검사 (혈압, 소변검사)를 한 후 등록할 수 있는데, 집 근처의 GP (General Practitioner)를 선택하여야 한다. 등록 할 때에는 보통 입학 허가서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NHS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본인, 배우자, 동반자녀에 대한 진료는 무료 (GP와 응급실 진료)
- 15세까지 동반자녀에 대한 처방전에 의한 투약 무료
- 15세까지 동반자녀에 대한 치과진료는 무료

■ GP 등록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집 근처의 GP에 등록하면 간단한 건강 진단을 거쳐 GP에 등록할 수 있다. (집 근처 GP list는 학교 information centre나 주위 사람들을 통해 알아낸다). 등록 후에는 우편으로 NHS 카드가 우송되는데 여기에 자신의 NHS 번호와 GP 이름이 적혀 있다. 영국 내에서 진료 받을 때



에는 NHS 등록인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보관을 잘 해야 한다. 등록을 미처 하기 전에 병원에 갈 일이 생길 경우, 첫 진료 시 NHS 등록을 하여도 무방하다. 병이 발생하면 먼저 자신의 GP와 예약해야 하는데, 자신의 담당의사가 부재 할 경우에는 동료 GP가 대신한다. 또한 GP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 (Chemist 또는 Pharmacy)에 가서 약을 조제 받는데, 16세 이하 어린이, 60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남자, 임산부,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자를 제외하고는 약값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자연 치료를 중시하는 영국의 GP는 처방전을 잘 주지 않는다. 약국은 예약할 필요가 없으므로 간단한 질병인 경우에 약국에 가서 상의해도 된다.

■ 치과 및 특별 진료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치료가 무료인데 비해 치과만은 환자가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부담해야 한다. 치과 치료는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NHS 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private으로 나뉘며, 경우에 따라 NHS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 때도 있다.

치과에 등록하려면 Surgery에서 받은 NHS Number나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bank statement, 전기, Gas, 전화세 고지서 등)를 가지고 치과에 가서 등록한다.

NHS에 의해 무료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8세 미만 (단 교정은 16세 까지만 무료)인 자
- 임신 중임을 증명할 수 있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

무료 또는 부분적 치과 치료비 보조를 받으려면 Form HCI를 작성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www.NHS.UK를 방문하면 된다.

■ 안과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필요한 경우, 안경사 (Optician)으로부터 시력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본인이 비용을 지불 해야 한다 (약 10 파운드 이상). 단 16세 이하 어린이와 19세 이하 학생인 경우는 무료이다. 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훨씬 비싸므로, 출국 전 한국에서 여유분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 임신 및 출산

임신이라 생각되면 GP를 만나 Test를 받도록 한다. 임산부는 무료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Form FW8을 작성하면 치과 치료나 약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임신 중의 병원비와 출산과 관련된 비용도 무료이다. 아기를 출산 한 후 10일 동안 가정간호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를 돌봐준다. 퇴원 후 약 6주간은 출산한 병원에서 산후 검진을 해 준다. 신생아 검진 또는 예방접종은 Baby Clinic에서 연락이 온다. 아기의 예방접종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단 영국 방식으로 예방 접종을 했을 경우 BCG (결핵) 접종이 늦어진다. 그러므로 DPT의 3회분이 끝난 후 BCG를 1세가 지난 후 접종 하는 것이 좋다.

2. 은행 계좌 개설

HSBC, Barclays, National Westminster(NatWest), Lloyds TSB 등 영국 시중은행에 가서 계좌 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물어본 뒤 약속 시간을 정한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재학 증명서이다).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약속 시간에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계좌를 열 수 있으며 우편으로 현금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영국에는 통장이라는 것이 따로 없으며 한 달에 한 번 우편으로 거래내역서 (bank statement)를 받게 된다.

3. 송금 받기

재외송금이 가능한 한국은행이면 영국의 어느 은행으로도 송금을 할 수 있으므로 영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은행이름 및 지점, 계좌 번호 등을 가족들에게 알려주면 송금을 받을 수 있다.



4. 지역 도서관 이용하기

영국은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으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등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면 도서관 열람권을 만들 수 있으며 책을 빌릴 수도 있다.

준비해 가면 좋은 것들

1. 전자 제품

영국의 전압은 240볼트로 한국의 220볼트용 전자제품에 소켓을 끼우면 영국에서도 사용가능하다. 사용전 전자제품 판매원 등에게 문의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소켓은 전자제품 상가에서 구입 가능.

- 전화기나 단파 라디오:사용 가능 (단, 전화기는 연결 단자를 바꾸어야 함)
- 전기장판은 Argos 등 영국의 전자제품 상가에서 구입할 수 있다.
- VTR, TV, DVD는 영국과 주사방식이 달라 호환성이 없다. (한국 NTSC 방식, 영국: PAL 방식) 단, VTR과 TV를 함께 가져가면 비디오는 볼 수 있다.

2. 부엌 용품

대체적으로 현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이 현명하지만 전기 밥솥이나 플라스틱 밀폐용기 등은 가져가면 유용하다. (영국은 플라스틱 제품이 비싸다)

3. 음식물

중국 상점에 가면 고추장, 된장 등 대부분의 한국 음식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건어물, 고추가루, 젓갈 등은 가져가면 유용하다.

4. 의류

기온은 여름과 겨울에 있어 영국과 한국이 많은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인 체감 환경은 비슷하다. 영국은 흐린 날씨가 많은데 보통 '늦가을의 흐린 날 오후' 같다고 할 수 있다. 여름에도 긴 소매가 필요한 반면, 겨울에도 한국에서 입던 두꺼운 옷은 그리 자주 입지 않으며, 방수 되는 옷 (우비)과 스웨터류가 유용하다.

5. 기타

면제품 (속옷, 양말), 스타킹, 문구류, 필름 (한국 보다 훨씬 비쌌), 건전지, 타올, 간단한 학용품 등은 한국에서 준비해 가면 좋다. 또한 감기약, 소화제 등 비상 약품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다.

6. 짐 보내기

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 항공사에서 제한하는 무게보다 더 많은 짐을 가져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초과되는 짐에 부과되는 비용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2-3달 이내에 꼭 필요한 짐은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우체국 등을 통해 배편으로 보내면 저렴하다. 배편으로 짐을 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숙소

1. 숙소의 형태

- 학교 기숙사
- 개인 주택 : 하숙(homestay), 원룸(bedsit), 아파트 식(flat), 단독 주택

2. 주택임대

직접 집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Real Estate Agent)이나 지역 신문 등을 이용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계약시 보통 6개월 계약을 하는 것이 좋으며, 한 달 정도의 임대료를 보증금(Deposit)으로 내는 것이 상례이다. 이 보증금은 이사 나올 때 돌려 받는 것이 원칙이나, 집 주인에 따라서는 집의 손상된 부분에 관한 비용을 보증금에서 뺀 후 남은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집을 빌릴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야 한다.

- 전 집 주인의 추천서 (반드시 요구되지 않음)
- 은행 거래 내역서 (Bank Statement)

영국은 한국과는 달리 Furnished (모든 가구가 구비되어 있음), Unfurnished (가구가 전혀 없음) 그리고 Partly furnished (기본적인 가구만 구비) 형태가 있다. Furnished 와 Partly furnished 의 경우, 집 주인이나 부동산 관계자에게 필요한 가구를 요청하거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3. 세금

■ Council Tax

우리나라의 주민세, 재산세, 오물세를 통합한 세금이라 할 수 있다.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이 세금은 청구되지 않는다. Full-time 학생인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정규 교육 기관의 학생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는 곳도 있고, 언어 연수 학생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곳이 있다.

■ Utilities bills (물세, 전기세 등)

집세에 포함된 경우와 본인이 쓴 만큼 내는 두 종류가 있다.

4. 숙소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것들

- Gas 점검을 받은 기록이 있는가
- 안전한 지역인가
- 중앙 난방인가 개별 난방인가
- 각종 공과금은 누가 내는가
- 장 볼 수 있는 곳은 가까이 있는가

※ 꼭 알아두어야 할 것

가구나 가전 제품, 기타 시설에 관한 손실은 세입자가 배상해야 되므로 입주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주인과 함께 꼼꼼히 점검하고 만일 고장이 있을 시 바로 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 가전제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작동이 잘 되는가
- 벽에 낙서가 있는가
- 못 자국이 있는가

또한 못을 박거나 인터넷 전선설을 설치하는 등 집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 집 주인과 반드시 상의 한 뒤 결정해야 한다.



전화

BT (British Telecom) 와 Cable and Wireless 가 대표적인 전화 회사이다. Cable and Wireless에 신청을 하면, 케이블 채널도 시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통, 신청은 전화로 한다. 전화회사를 바꾸고 싶든지, 전화선을 신규로 설치 할 경우 주인이나 부동산 대리인과 먼저 상의를 해야 한다.

핸드폰(mobile phone)은 상점에 가서 구입 할 수 있다. 학기초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싼 값의 상품이 나오므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후 구입한다. 다양한 요금제가 있으므로 비교 후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중국 상점이나 News Agent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제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여가 생활

‘런던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면 세계 어딜 가도 지루하게 느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런던 뿐 아니라 영국에서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대표적인 여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영화** : 영국의 영화 요금은 극장이나 시간에 따라 차별적으로 책정된다. 학생증을 가지고 가면 학생할인을 받을 수 있다.
- **공연** : 영국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이 많이 열린다. 뮤지컬, 클래식 및 팝 콘서트, 발레 및 현대 무용 공연, 각종 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이 전국적으로 공연되는데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리 표를 구입하는 경우 저렴한 티켓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박물관과 미술관** : 연중 다양한 전시회가 개최되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품들과 현대에 주목 받고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 **Pub** : Pub이란 맥주나 알코올 등을 파는 곳으로 영국인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대부분 펍에 가서 여유를 즐긴다. 우리 나라와 달리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맥주 등을 마시므로 자연스럽게 옆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 **스포츠** : 축구, 크리켓, 수영, 스쿼시 등 각종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골프, 승마 등 우리 나라에서 귀족 스포츠라고 알려진 것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 **여행** : 영국은 유럽 대륙 및 아프리카 대륙과 가까우므로 방학을 이용해 여행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여행사에서 1일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토요일에 근교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도 있다.
- **파티** : 영국에서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간단한 음식과 함께 이야기를 즐기는 문화가 발달했으며 이러한 파티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클럽** : 영국에는 춤을 즐길 수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으며 간단히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춤을 즐길 수 있다. 클럽은 보통 새벽 2시까지 여는데 밤길을 걷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택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 가야 한다.
- **자원 봉사** : 양로원 등에서 노인을 돌보는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다.
- **쇼핑** : 영국에는 7월과 12월에 큰 세일이 있으며 그 시즌에 팔던 물건들을 최고 7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교통

영국은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잘 나누어져 있으며 대도시가 아닌 경우 대부분 도로나 자전거로 통학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소 도시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자전거를 사는 것이 유용하다. 고가의 자전거의 경우 도난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고 물품 상점에서 적당한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대도시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1주, 1개월, 3개월, 1년 단위의 교통 카드를 살 수 있다. 이런 교통 카드를 구입하는 경우 지정 구역 내의 교통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학생의 경우, 재학 증명서를 가지고 역에 가면 3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구입

차를 사려면 우선, 가격과 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가능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차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또는 중고차에 관한 잡지 (Auto Trader 등)를 보고 중고차에 대한 사정을 파악한 후 자신의 형편에 맞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중고 자동차의 가격은 같은 차종일 때 생산연도, 운행거리 (영국은 연 12,000 Mile이 기준), 차량 색깔, 관리상태, full service history 유무, 이전 소유자의 수, MOT test와 Road Tax 잔여 기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중고차를 사고 팔 때는 차량 등록증 (Vehicle Registration Document)의 하단을 전주인이 기록하고 상단을 새 주인이 기록해서 DVLA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보내게 되어 있다. 차량 등록증에는 차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력이 있다.

- **MOT(Ministry of Transport) Test**: 3년 이상 된 차는 1년에 한번 씩 정비소에서 MOT Test를 받게 되어있다. MOT 점검은 MOT를 하는 곳이면 아무 곳이나 상관없으므로 가능하면 싼 곳을 찾아 점검 받는다.
- **Road Tax** : Road Tax는 우리나라 자동차세와 비슷한 것으로 모든 차량은 Tax Disc를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DVLA에서 고지서가 오므로, MOT Certificate와 자동차 보험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구입할 수 가 있다. Road Tax를 내지 않고 도로면에 주, 정차 혹은 운행 중일 때는 5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 **자동차 보험** : 자동차를 운행 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국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동안 사고가 없었다는 무사고 증명서 (No-Claim Certificate)서류를 준비해 가면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회사에 따라 위의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보험 가입 이전에 몇 군데의 보험 회사를 접촉하여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의 종류에는 개별 보험 (Third Party)과 종합 보험 (Comprehensive)이 있다. (Third party: 사고 시 상대방의 손해 액에 대해서만 보상).